**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 계시록, 영감, 정경**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아요, 아직 이름을 정하는 중이니까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기 이 신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에요? 저는 매트입니다. 또 다른 매트? 아, 우리에겐 Matt와 싸워야 할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Matt와 Matt, 알았어. 누구세요? 저는 웨스예요. 당신은 웨스입니다.

펜실베니아 남동부 출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의 카드를 읽었고 당신 중 적어도 세 명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펜실베니아 남동부 출신입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겠죠? 아니요? 좋아요, 어쩌면 다른 반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거기 살았었기 때문에 당신이 정확히 어디 출신인지 알아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좋아요. 필라델피아 근처? 내가 말했지? 응?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나요 ? 저는 뉴저지 쪽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좋아요. Soderton 과 Telford 지역을 아시나요 ? 좋아요, 필라델피아 북서쪽이 우리가 살던 곳이에요.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어, 텔포드. 아, 물론이죠. 응. 보스턴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웨스. 웨스. 감사합니다.   
  
좋아, 우리는 결국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이제 시작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춥죠? 이 방에는, 이전에 이 방에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겨울에는 추운 경향이 있습니다. 담요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시킨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노트북을 사용 중이고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한 경우 항상 맨 앞줄에 있기 때문에 뒷줄에 앉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과 연결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몇 가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확장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갖지 않을 것이다. 매번 휴대폰을 꺼주세요. 하지만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캐리의 리뷰 세션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예. 알았어, 알았어. 맞췄어. 그래서 화요일, 그리고 그것은 다가오는 화요일이 여러분이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추측한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Matt, 실례합니다. 테이프에 녹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곧 기침약 때문에 침을 흘리기 시작하면 이해하게 되겠죠? 어쨌든 Matt는 26일까지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Martin Luther King Day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했듯이 복습 세션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시험 전날에 도착했을 때 확실히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나저나 나는 아직도 당신의 이름을 연구하는 중이고, 다음 주 반 정도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마 우리가 확실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를 보고 다운로드했다면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이 바로 다음 수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다음주 수요일 저녁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는 전적으로 선택 사항이지만, 저는 이 수업을 가르치는 매 학기마다 강의를 제공합니다.

남편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또한 강한 기독교인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천체 물리학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상당히 잘 통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와 그 모든 것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항상 그 사람을 들어와서 빅뱅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했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의 흐름과는 반대로 과학적 구성으로서의 빅뱅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의 전체 개념과 실제로 매우 잘 통합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을 따로 떼어 두세요. 블랙보드에 문제가 있나요? 강의 계획서나 기타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우리 모두 거기에 준비 됐나요? 알았어, 알았어.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에도 말했듯 이 저는 항상 시편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시편 100편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시편 86편 10절과 11절을 했는데 오늘은 시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100편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마지막 구절을 부르는 법을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00편을 모두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된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의 뜻에 따라 수요일에 우리는 그 구절을 부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기쁨으로 소리쳐라.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다면 온 땅이 주님께 기쁨으로 소리쳐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즐거운 노래로 그 앞에 나아오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 목장의 양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즉,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약 다섯 편의 다른 시편과 함께 히브리어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구절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히브리어 수업에 등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렇죠? 언제 이 수업에 등록 하셨나요 ? 하지만 여러분은 히브리어에서 아마도 25~30개의 중요한 단어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일부는 바로 여기 시편 100편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고통스럽게 문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것을 흰색으로 여러분에게 전 합니다 . 그의 헤세드. 이번 학기 내내 우리는 헤세드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번역할 수 없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귀하의 번역에는 때로는 자비가 있고 때로는 사랑의 친절이 있지만 이는 실제로 영원히 충성스러운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불러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헤세드(hesed)를 고수하며, 그것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단어 입니다 .

후음 연습해봐, 알았어, 알았어, 헤세드, 알았어, 레올람 hasdo , 소유격인 대명사 접미사 때문에 O가 끝에 있습니다. 즉, 그의 헤세드가 남성적이라면 그들은 O 소리, ve'ador , vador 로 끝나고 세대와 세대에 걸쳐 그의 신실함, emunato , 주목하세요 hasdo , emunato , 그의 헤세드, 그의 신실함.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천천히 해보자, ki tov Adonai, le'olam hasdo , 아, 그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군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ki tov Adonai, le'olam hasdo , 오 예, ve'ador , vador , emunato .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따라 수요일에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귀하신 구원자, 진리의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살아있고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살아 있고 활력이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오니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불의와 분쟁으로 분열된 세계 곳곳을 위해 정의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강권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양측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해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담대히 호소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당신의 이름이 존중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계시와 영감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이 오늘 과제를 읽었다면 이미 읽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Theological Primer를 읽어보셨다면, 이러한 교리적인 문제들 중 일부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들을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게 단서인가요?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 본문, 특히 구약성서의 정경에 대한 개념과 권위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본문의 전체적인 특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강의 개요를 다운로드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타나크는 무엇을 뜻하나요? 어서 가세요, 메리. 맞습니다. 토라(Torah)는 교훈을 의미하고, 네비임(Nevi'im)은 선지자(역사적 기록과 기록 선지자를 모두 포함함), 케투빔(Ketuvim)은 시와 기타 여러 가지를 포함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조금 더 앞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시편 19편에는 어떤 교리가 매우 분명합니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속죄를 통한 구원,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한 구속, 자연과 성경에 나타난 계시, 우주의 창조와 유지입니다. 누가 첫 번째 말을 합니까? 아무도. 두 번째?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몇 가지 임시적인 손이 있습니다. 제가 세고 있는 게, 오, 대략 5, 6 정도인가요?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네 번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앗. 우리는 답변을 너무 빨리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난 뒤로 가지 않을 거예요. 괜찮은.

잠깐만요. 그 반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것들은 놀라운 진리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늘에 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 자체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분명합니다. 괜찮은.

이것이 검토 및 미리보기 질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경전의 본질과 권위에 대해 건전한 이해를 갖는 것이 왜 꼭 필요한가요? 이것은 심지어 기독교적 맥락에서도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이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다면 성경이 오두막보다 더 큰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근거 없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

The Shack을 읽어본 사람 있나요? 좋아요. 흥미로운 책. 문학적 능력 측면에서는 C+, 다루는 문제 측면에서는 B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는 별로 안 맞는데요, 그렇죠? 왜?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꼭 필요한가요? 누구든지 이것에 도전하고 싶습니까? 사라, 어서 가세요. 좋아요.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가정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해 잠시 후에 이야기하게 된다면, 초월적인 우주의 신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다루지 않을 모든 종류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 또한 모든 종류의 의미를 지닌 개인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성경에 구현된 그분의 말씀이 그에 대해 어떤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감각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케일린? 알았어, 알았어.

계속하세요. 좋은. 혹시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 Kaelin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그것이 진실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가정합니까?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정말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 건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몇 가지 질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성경을 생각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내 말은, 사라가 말했듯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전제에 따르면, 우주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접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말이 벗겨지지 않거나 오늘 발에 신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몇 년 동안 듣기만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서 지루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무례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의 실제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약간 반혼수상태에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나요? 내 중 하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이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까? 케이틀린, 그게 질문인가요? 응.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오하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질문을 촉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읽어 볼만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칠판에 붙여 놓겠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손을 통해 전해진 이 텍스트가 있다면 어떻게 그 교리가 무오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진술? 그리고 사실 그것은 전체 진술입니다. 나는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점을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착할 것이다.

다른 질문이 있나요? 내 이름, 당신 이름, 미안해요.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수잔나, 고마워요.

좋은. 다양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질문을 하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훌륭한 질문입니다.

어떤 전공을 택할 예정인가요? 아, 우리가 실제로 그 질문을 오랫동안 추구하는 어느 시점에서는 성경 해석학을 받아들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철학 전공의 좋은 보조 교재입니다. 괜찮은.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신뢰할 만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제안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완전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마도 아직 묻지 않았거나 이 시점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질문에 몇 가지 신뢰할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개요를 설명하면서 그 중 일부만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위한 공개 포럼이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있는데, 첫 번째는 빅뱅 토크이고 그 이후에요.

귀하의 질문을 해당 문서로 가져오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이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우리는 몇 가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올해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미술 전공자 여러분 에게 렘브란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학기 내내 그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정말 사랑스러운 그림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티스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이것을 보면서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Nick.

좋아요. 작가는 심오한 미의식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공평한 말인가요? 괜찮은.

그는 자연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능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뭐야? 아직 당신 이름을 알아야 하나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생강.

감사해요. 즉, 이 작가는 여기서 대조에 대한 무언가를 제시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아마도 어떤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은 이것의 일부인 도덕적 요소에 대해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 다른 건 없나요? 아, 말하지 마세요. 잭.

괜찮은. 좋아요. 그의 스타일로 판단하면 그는 현대 화가가 아닙니다.

오른쪽. 그리고 물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약 500년 전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좋은.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가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있습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인식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충분히 능숙하고 대조에 대해 뭔가를 볼 수 있으며 아마도 거기에서 몇 가지 의미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일린, 한번 해볼래? 손이 안 올려져 있어요. 좋아요.

괜찮은. 글쎄, 그건 잠시 남겨두자. 우리는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예술가를 생각하고 단지 그의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감각. 자연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상당히 정확하게 수행하는 감각. 좋아요.

그냥 기다리세요. 계속하자.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계시를 정의할 것이며 잠시 후에 우리 그림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강의 개요 노트에 있고 입문서에도 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는 정의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것을 외우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진리를 가르치는 신성한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이끌어냅니다. 그 부분도 중요해요. 당신은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했습니다.

아, 싫어요. 아, 너무 구시대적이네요. 아, 정말 멋지네요.

아, 그는 브릿지를 설치하고 색상 대비를 갖추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개념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이며, 우리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구절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의사소통 행위는 계시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좋아요. 이 특별한 문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성경 자체, 성경 자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에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에도 활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 점을 알려 줍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계시보다 신의 의사소통 행위가 더 좋다면 약간 과로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조금 더 진행해보자. 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전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들을 기본적인 이해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말하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철학 수업에 가서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토론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반드시 순환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일종의 이해의 나선을 만들고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제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은 신성한 존재와 성경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의 다른 이름들 중에서 실제로 의사소통을 선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는 의사소통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신성한 존재는 적어도 우리 사물의 영역에서는 초월성을 의미하지만 그는 또한 개인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의도적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창조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구속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궁핍한 편이에요. 계시의 목적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며 실제로 그 목적은 달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파와는 달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고 안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글쎄, 말이 너무 부적절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장의 그림은 천 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글쎄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그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은 적절하고 충분히 적절합니다.

나는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로고스 교리(Logos Doctrine)라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당신이 읽은 입문서에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입문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 밖에 있는 창조된 현실 사이의 연결과 상호 연관성, 일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로고스는 그리스어로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 자리에 놓겠습니다.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또 무슨 뜻인가요, 테드?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신약성경 외의 헬라어 사전에서 로고스의 의미를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논리를 뜻합니다. 대응이 흥미롭습니다. 이유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체 의미 풀을 취하고 말을 넘어 확장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는 덕과 단순히 말씀의 덕으로 창조 질서를 존재하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무엇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 실험하는 것, 측정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자연현상을 말한다. 그들은 그들을 대표합니다.

나는 여기 데스크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스크탑을 보고 계시나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은 거기에 있는 청중에게 그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고, 내 말 덕분에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전에 본 적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말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아주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밤에 남편에게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세요. 물리학을 전공했거나 물리학을 공부할 예정인 분은 몇 명입니까? 아무도? 자연 과학? 물리화학? 그런 종류의 것? 아마도? 당신과 내가 측정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백분율로 보면 우주의 얼마나 됩니까? 백분율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해요. 4.6%.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리학자들은 많은 실험을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오른쪽?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합치면 우주의 약 95%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할 수 있고, 보고, 측정하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중입자 물질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의자도 마찬가지다. 그럼 저기 불빛이 있나요?

그것은 우주 창조질서의 4.6%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사실이라면, 이제 비유를 따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물리적 영역에서 사실이라면, 저 밖에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고, 경이롭고, 풍부하고,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전에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흥미로운 일이다. 어쨌든,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왁스를 칠했습니다.

계속하자.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선택해 보세요. 이 모든 계시의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내어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모든 과정, 즉 신성한 자기 공개를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이 말을 하는 이유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러한 실험은 저 밖에 암흑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저 밖에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인류의 능력입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제가 이 토론의 맥락에서 이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요, 조금 더 진행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이며, 매우 표준적인 신학적 범주를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계시, 때로는 자연계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관해 성경의 세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시편 19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그분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속성이며, 그것들은 창조를 통해 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창조를 연구하는 천체물리학자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스타를 공부하세요. 또한 블랙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세요. 두 구성 요소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이 그 손 으로 하신 일을 날마다 나타내는도다. 즉,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밤마다 지식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구절은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는 말이나 언어가 없습니다. 그것이 NIV의 번역입니다. 온 땅 세상 끝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계속해서 선포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천문학을 공부하세요.

당신은 이것에 대해 더 큰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계시에 대한 우리의 정의의 일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을 주목하십시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숨은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이 매우 신속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숨은 허물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계시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의 숨은 잘못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죄까지 당신의 종을 고의적인 죄로부터 지켜 주소서.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면 내가 흠이 없고 큰 죄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외우는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당신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 이것은 응답입니다.

그 계시는 응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면 로마서 1장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문서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그는 복음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억압하고 있다면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의도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비극적이게도 그것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20절이 핵심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은 꽤 진지한 구절이다. 만들어진 것, 우리가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무엇인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 사진을 보셨듯이, 우리가 단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술가에 대해 알아낸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창조된 질서를 살펴보고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나는 로마서 2장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이 책 전체를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15절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로마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모든 인류가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는 창조된 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장 15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토라의 요구 사항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비난하고 있고, 지금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악이 아닌 선을 인식하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양심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내 생각에 너희들은 CCC에 대한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를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거기에서 그의 주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무엇이 공평한지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일로 인해 기분이 상했을 때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본질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게 행해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CS Lewis는 로마서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 신학적으로 포함된 내용을 단순히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계시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린 그림을 활용해 봅시다. 당신은 그 그림에 대해 무엇을 모르나요? 진저 얘기를 꺼내서 빛과 어둠을 얘기한 게 당신이었나요? 오른쪽. 그것은 당신이 렘브란트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어떤 동기나 아이디어, 생각을 현명하게 읽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까? 아마도 그는 단지 구름과 밝은 하늘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그림에 대해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리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 이름을 알려주세요. 조안나.

다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좋아요, 우리는 구름의 움직임을 모릅니다. 우리는 날씨 패턴을 모릅니다.

현장 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 좋아요. 또 무엇을 모르시나요? 매트예요.

오른쪽. 응. 우리는 그가 왜 그것을 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추측하고 싶지만 그가 연도 등을 적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리기로 결정했고, 내가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르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동기를 모릅니다.

당신은 그럴지 모릅니다. 당신은 의도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특별계시 외에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나 자연 계시와 대조하여 사용하는 용어인 특별 계시는 기본적으로 명제적 진리를 나타내는 언어적 진술입니다. 나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정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렘브란트의 성격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자비로운 세력인가, 아니면 사악한 세력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러 오면 압니다. 인간 존재의 성격과 의지의 의미, 그리고 영적 세계의 본질.

이것은 특별계시가 우리에게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제적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대신, 진실과 거짓의 구성요소가 있는 진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의자가 내 앞에 있어요.

그것은 진실한 진술입니다. 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말씀이네요.

내 기분이 좀 끔찍하다는 표현인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글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명제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글쎄요, 범주와 특별계시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은 큰 X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X의 두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는 곳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은 그 그리스도 사건을 되돌아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서신서에서는 그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X인 X가 그리스 문자 Chi Christos를 대표한다는 점도 흥미롭지 않나요? 좋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그리고 강력한 행위와 예언적 교훈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며,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신성한 의사소통 행위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시간을보고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내가 너를 놓칠 정도로 수군거리고 헛소리만 한 걸까? 예.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은 케이티입니다. 케이트와 케이티가 있어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초자연적이죠, 네,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특별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어 있고 반드시 초자연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하기 좋은 용어이지만 일단 텍스트를 갖게 되면 서면 텍스트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한 예수로 모시면 그는 인간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한 신이지만 그는 또한 완전한 인간이고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그를 완전한 인간으로 경험했지만 그것을 대조로 사용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나요? 좋습니다. 할 일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영감.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제기된 몇 가지 질문에 도달하며 적어도 그 중 몇 가지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정직하기 위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외워두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두뇌에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억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작가 패니 크로스비(Fanny Crosby)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시각 장애인 여자.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외웠는지 아세요? 복음서, 시편 모두를 다 읽고 30대가 되었을 때 소선지서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한두 구절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외우고, 성경구절도 외우세요. 정말 좋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특별한 행위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것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이 몇 가지 일을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 몇 가지가 있으므로 여기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생각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쓰기 과정이 아니지만, 그들의 말은 성령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생각, 성령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실제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기에는 노골적인 모순과 불일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간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관성의 일부인 매우 흥미로운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즉 나머지 경전과의 적절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하므로 사상, 사실, 교리 및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곳은 때때로 안테나가 올라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오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히 사실에 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리는 신학적 구성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사실에 있어서도 무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전이 되는 분야는 과학과 역사, 특히 과학 분야입니다. 다음 수요일에 오십시오. 그 중 일부는 창조의 한 영역에서만 과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생각, 사실, 교리, 판단입니다. 먼저 이 정의를 확장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일부 구절을 살펴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강화합니다. 문화적 배경의 독특한 조합.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록해야 하였습니까? 수요일에 예배당에 참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딘 카머(Dean Carmer)가 예레미야의 이야기와 예레미야가 그의 문화적 맥락에서 견디고 있었던 일들, 예를 들어 그의 나라가 그를 중심으로 무너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말하는 내용은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달라집니다. 매우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100년과 그 몇 년 전에 말했던 것과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적 맥락은 성격, 언어, 배경 등도 형성하게 됩니다 . 요점은 이 작가들이 언제 살고 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성령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문화를 초월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배경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하며,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돌아가서 렘브란트가 언제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문화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닌 그 그림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와 경전의 말씀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진실성에 있어서 탁월한가?

글쎄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예, 성경은 그 자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다름 아닌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경이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성경이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꽤 괜찮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텍스트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의심의 이점은 문서 자체에 부여되는 것이지 우리 문화에서는 비평가가 자신에게 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독자인 우리는 구성 요소와 텍스트의 성격, 권위, 신뢰성 측면에서 저자 자신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갖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약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것이 우리가 조금만 착륙하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것을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3장.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와 이야기할 때 원래 기록된 사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배운 것을 계속하고 그것을 확신하라. 네가 배운 사람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나요? 유아기부터 말한다면 잘 추측해 보세요.

엄마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흥미롭게도 실제로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유니게와 당신의 할머니 로이스, 1장. 우리는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배운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의 성격 측면에서 우리가 실제로 목표로 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과 의롭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경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과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모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베드로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그들이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중요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꽤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경입니까? 글쎄, 아마도 첫 번째 성서 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베드로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작은 창을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우리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격자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16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중요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을 때, 복음서 작가들이 글을 쓸 때, 바울이 글을 쓸 때, 실제로 사건에 연루된 목격 증인들은 사건의 진실성과 진실성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출처로 간주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목격자를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목격자였다고 말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절, 무엇보다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선지자 자신의 해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구약성서에 대해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한 공동체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종교 공동체, 아니면 죄송합니다.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공동체입니다. 신과 신성한 존재, 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

피터는 아니, 아니,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21절의 예언은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말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그 자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지속적인 중요성과 진실성을 확증하셨습니다.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난 학기에 신약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에게는 매우 충실한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위층 방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최후의 만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강림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14장, 16장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행하실 일 중 하나는 당신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방에는 조금 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건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이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하게 행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말할 것이고 나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서 그는 이 건물 전체,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두 사람을 동일시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선지자는 구약의 저자이고 사도는 바울과 동시대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사건과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진실성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은 입장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그 자체에 관해 말하는 것에 대한 간략한 썸네일 스케치입니다. 당신이 입문서를 읽었다면 이미 그것에 대해 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권위에 관해 몇 가지 논평을 해야 합니다. 앞서 여러분 중 한 분은 영감의 중요성과 본문을 우리 삶에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본문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본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본문이고 그분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어찌 권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 권위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목사님이 고든 휴겐버거 (Gordon Hugenberger)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듯이 , 제가 그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신이 디자이너이고 당신이 디자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능 방법에 관해 디자이너의 말을 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과 실천의 법칙으로서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저는 캐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문이 있나요? 나는 단지 표면만 훑어봤다는 것을 안다. 저는 계시와 영감에 관한 이러한 문제에 관해 겉만 훑어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논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사라? 네, 좋은 질문이에요.

신약성서는 언제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까? 글쎄, 내 쉽고 불쾌한 대답은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성경 해석학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Paul은 자신이 매우 중요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앞서 말했듯이 그가 사도와 선지자를 동일시하여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은 모퉁잇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피터도 같은 일을 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가 말할 때는 16절인 것 같은데 그 근처 어딘가에 15, 16절이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글을 왜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성구들처럼 바울의 글을 왜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쓴 글도 언급하기 위해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흥미로운 인식입니다.

이미 1세기 말에 교부 중 한 사람인 클레멘스(Clement)가 성경을 인용하여 분명히 권위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주변, 음, 지중해 주변, 예를 들어 이 텍스트를 권위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지속적인 수의 사람들과 공동체의 측면에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잠시 후에 정경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아주 분명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성령이 서기 50년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확언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성경 본문에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성경의 정경을 형성하고 형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영감의 측면에서 성령만을 생각하고, 우리 배경의 일부인 카리스마적 은사 측면에서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잭? 정경에 영감을 주는 데 성령의 역할이 왜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생각에 우리 세대 내에서 우리가 정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루는 것 중 하나는 특히 신약성경의 정경입니다. 사도적 증인의 죽음, 즉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현장에서 본 자, 목격한 자, 그것이 정경 본문의 끝입니다.

이제 확실히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의회가 성령의 지혜에 호소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에 따라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텍스트를 제작했을 때와 같은 종류의 일이 발생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께서 정경을 형성하시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교회 공의회만큼 늦게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신약성경의 정경이 실제로 2세기에 거의 확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의 정경 목록과 함께 4세기까지 그것이 정경으로 인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더 일찍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계속해. 우리가 그 기간에 속해 있나요? 내 말은, 확실히 그것을 인용한 루터는 그것이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지만 흥미롭게도 3세기에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여 사람들이 정경으로 인식하는 텍스트 목록이 꽤 균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Origen이 있습니다. 그러면 2세기인 무라토리안 정경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의 연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신약성서의 일부인 책들을 나열하는 2세기 문서입니다.

이것은 나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1세기 말, 즉 기록된 정경의 끝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정경을 보존하는 성령의 활동을 확실히 확증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구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논에 대한 커뮤니티의 인식. 자, 의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약간의 구별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픈포럼에 오세요. 조금 더 추진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캐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논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이고 그 문제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갈대, 파피루스 갈대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파피루스는 키가 12피트에서 15피트 사이로 자라므로 측정 막대로서 매우 훌륭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정경이라는 용어의 두 가지 병행 사용을 얻게 될 파생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특정 책이 권위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사람들이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즉, 정식이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측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카논은 그런 식으로 기능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책이 정경인지 여부를 측정합니다.

구약성서와 관련된 두 가지 기본 사항은 사실 신약성서에서도 신학적으로 정통적인지 여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맞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중역본이나 외경을 알고 읽어본 분들은 거기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 본문 중 하나인 토비트 서를 읽으면 다소 이상한 마법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과 어떤 공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소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은 신학적 정통성과 정확히 들어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 테스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나를 큰 어려움에 빠뜨린 성령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Zach는 그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측면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측정 아이디어는 텍스트 자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준을 충족하여 정식으로 간주될 것입니까? 탐구의 두 번째 길은 그 카논이 우리를 위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문의 권위를 확증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행과 믿음에 실제로 부응할 것입니까? 따라서 Canon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더 있는데,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특성은 복사되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인간이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진리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사 과정과 번역 과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빠른 기사가 아직 없다면 제가 Blackboard에 게시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한성과 오류 가능성이 이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창세기를 시작할 때 바로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 본문은 다양한 출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39권의 책도 모세가 오경의 저자였다고 가정한다면 1400년대 어딘가에,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 틀에서 말라기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400년대에 걸쳐 나온 것입니다. 알다. 그리고 그 책들 안에서 모세 자신도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원한다면 다양한 장르, 다양한 종류의 문학이 있습니다. 토라는 실제로 지시를 의미하지만 거기에는 서술도 있습니다. 역사책은 역사책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의 빛 가운데 펼쳐지는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에는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다양한 장르가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의 병행구절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병행구절을 읽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거기 있는 내용을 흡수하고 이러한 텍스트가 발생하는 문화적 맥락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사점은 여러분에게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의 맛을 조금 줄 것입니다. 윌슨 박사의 책인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대교 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전체 유대적 맥락과 지속적인 역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10시 10분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작업을 매우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이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안식일 샬롬이죠. 원하신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안식,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안식일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샬롬입니다.